

영웅들의 빛나는 삶을 따라 배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영웅적이지 않더라도 투쟁한다는 것은 개인의 리익이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봄날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는 학교마당은 명절날처럼 흥성이고있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이자 학교에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날이었다.

가야마다 꽃송이를 달고 학교마당에 섰듯하게 들어서는 신입생들, 그들에게 꽃보리를 뿌려주며 반갑게 맞이하는 교원들과 상급생들...

잠시 후 신입생들은 학교현관 옆에 모였었다. 환영곡소리와 박수소리, 노래소리도 멋있었다. 엄숙한 분위기가 학교마당에 퍼들었다.

《신입생동무들, 동무들은 오늘부터 영웅길주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학교교장의 말이였다.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

방편전 학교로 들어서면서 보았던 《김주군 영웅길주중학교》라는 학교명판이 다시금 안겨왔다.

신입생들이 모여선 곳은 영웅소개관앞이었다. 해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될 때면 이곳에는 신입생들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여서곤 한다. 학생들은 영웅소개관앞에서 학교가 배출한 영웅들의 빛나는 위훈과 고결한 정신세계, 그들의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곤 한다.

우리가 학교에 들린 그날에도 바로 그런 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이 끝나자 신입생들은 영웅소개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교장 오남철동무는 며칠전에 바로 이곳에서 졸업반학생들이 졸업기념사진을 찍고 조국보위초소로, 대학으로, 강성대국건설전투장으로 달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학교학생들의 중학시절은 저 영웅소개관앞에서 시작된다! 말하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해방직후에 건설된 김주군의 첫 중학교인 영웅길주중학교는 60여년의 오랜 력사와 함께

김주군 영웅길주중학교에서

많은 영웅을 배출한 자랑을 가지고있는 학교이다. 1기 졸업생들속에서 영웅이 나온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학교에서는 10명의 공화국영웅과 5명의 로력영웅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의 영웅이 배출되었다. 학교의 15번째 영웅은 김선희여자축구선수이다.

조국을 빛내이는 영웅이 되고 애국자가 되는것은 이 학교 학생들의 한결같은 리상과 포부로 되고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영웅들의 모습이 간직되어있다.

한 학생은 글짓기시간에 《영웅과 나》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다. 《영웅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학교가 낳은 영웅들은 어떻게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위훈의 주인공으로 될수 있었는가. 우리 선생님은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겁고 강렬한 사람이었다고 항상 이야기하신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 때 누구나 영웅적 위훈을 세울수 있다고 하신다. 나도 영웅들처럼 살며 배우

겠다. 그리하여 꼭 영웅이 되겠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 학급, 아니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의 소망이다.》 학교에는 졸업생들이 모교를 떠나며 남긴 글들이 있었다. 《영웅의 넋을 이어》, 《영웅되어 돌아오리라》, 《16번째 영웅들》 등과 같은 제목으로 된 글들마다에는 영웅적삶에 대한 열렬한 지향이 담겨있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려는 역센 의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빛나는 위훈을 세우려는 결심, 그것이 영웅길주중학교의 학생들, 아니 나라 청소년 학생들의 가슴에 품어번지는 영웅적삶에 대한 갈망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 령도의 언행과 언행이 이어 세대가 이어 전세대로부터 넘겨받는 고결한 넋이고 아름다운 지향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 영웅소개관을 떠나며 행하는 우리의 귀에 리수복영웅의 시를 읊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쟁쟁히 울려왔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영웅도 귀중하다 찬란한 태양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리라!》

우리는 영웅의 시가 울려오는 교실창문을 오패도록 바라보았다.

15명 영웅들의 모교에서 그들이 공부하던 책상들에 마주앉아 영웅들의 빛나는 삶을 인생의 본보기로 세우고있는 나이 어린 신입생들의 모습이, 영웅들이 걸었던 그걸에 자기의 생의 자욱을 새기며 조국보위초소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일터마다에서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이 학교졸업생들의 모습이 그 창문에 다 비껴있는 듯 하였다. 영웅감들이 끝없이 자라나고 영웅이 수없이 태어나는 내 나라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본사기자 허 명 수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장군님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신 선군의 내 조국에서는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날을 따라 활짝 꽃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데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순결한 교육자적 양심을 지니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켜 나가고있는 순선시 중산중학교 소학반 교원 차영순동무는 아름다운 소행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지난해 4월 차영순동무는 어느 한 가정의 자식이 소학반에 입학하여 공부할 나이가 되었지만 몸이 불편하여 학교까지 못가고있는 사실을

알고 자진하여 맡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과 같이 그를 업고 출근하여 공부할 기회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학습용품도 마련해주면서 후대교육사업에 뜨거운 진심을 바쳐가고있다. 그는 남편을 따라 순선시로 오기 전까지 개천시 북원중학교에서 소학반 교원으로 근무했던 때에도 학생들에게 혈육의 정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최우등생으로 키워내었을뿐만 아니라 자질향상을 위한 피라는 노력을 기울여 교직원들과 학부형들속에서 선군시대의 참된 교육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지를 끝없이 사랑하고 동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우시군 《김일성화합정일화은실》 로동자 리경숙동무는 우시군 읍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중민동무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있다. 영예군인이 불편해할새 새 침대를 세워서 차려내주고 집도 더 번듯하게 꾸려준 그는 해마다 국가적 명절과 기념일은 물론 영예군인의 생일날에도 가족과 함께 지성어린 보양제와 식료품을 준비해가지고 찾아가 노래도 불러주고 용기도 북돋아주면서 그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구상시 청년동 18인민반 반장 김은순동무는 인민반의 모든 세대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도와주어 인민반안에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화목한 생활기풍이 차려내며 하였으며 농민들의 한판리국의 일꾼들과 인민보안부 부원 파은길, 민예상점에서 일하고있는 정영성, 광복로동자 황정숙, 평성시상업관리소 중대식료품상점 책임자 김리향, 신의주청년동무 신의주청년역사령장 최성철, 북창군 읍 145인민반 배중국, 평안북도산원 일꾼들, 고산군 봉화중학교 교원 김광주, 라선시 라진혁명전적지관리소 로동자 김순희동무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영예군인의 생활을 잘 돌봐줌으로써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고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이와 같은 미풍은 《하나의 전제를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생활관을 체제화한 우리 조국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화폭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힘있는 파사로 된다.

본사기자 조 향 선

민족성을 꽃피워가는 금지와 보람

보통강구역종합식당에는 자랑이 많다.

민족 음식봉사를 잘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이 식당의 가지가지 자랑을 말해주듯 종합식당에는 많은 메달들과 상장이 있다.

그 메달들과 상장들은 4월의 명절로리축전들과 전국적인 로리경연들에서 받은것이다. 그 하나하나의 메달과 상장들앞에서 종합식당의 종업원들은 민족음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그 발전에 열매와 노력을 기울여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금지와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결심도 다지곤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봉사일꾼들은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글다글 애쓰는 봉사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보통강구역종합식당앞에는 대보국수집, 대보1, 2식당, 붉은거리강냉이국수집, 보통교국수집을 비롯한 많은 식당들이 있다.

그 식당들마다에서는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로리들과 음료를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사업을 즐기게 벌여왔다.

그 나날에 보통강구역종합식당의 종업원들은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막걸리와 같은 음료들과 여러가지 민족로리들을 잘 만들어 전국적인 로리경연

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왔다.

이런 성과와 경험을 살려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진군이 벌어지고있는 올해에 민족음식을 더 잘 만들어 봉사하여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려는것은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들은 자주 주민들속에 들어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음식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동시에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식당에서 만들어 봉사하고있는 로리와 음료들에 대한 주민들과 손님들의 의견도 종합하면서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민족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수십가지의 로리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러한 로리들을 인민들에게 봉사할 때면 그들은 더없는 기쁨에 넘친다.

맛짱 요리양가높으며 특색이 있는 로리들을 마추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인민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민족음식을 더 훌륭하게 만들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견고결은 결들과 하나의 로리를 놓고도 밤을 새우며 토론을 거듭하던 나날들을 즐겁게 되며더보곤 한다.

올해에도 이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될 제15차 4월의 명절로리축전에 조선사람의 기호와 구미에 맞고 인민들이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민족음식들과 음료를 내놓았다.

보통강구역종합식당 일꾼

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민족애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갖는 막걸리와 된장국수집과 그리고 20여가지의 로리들은 하나와 같이 민족적향취가 흘러넘치고 맛과 향기가 독특하며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심사위원들과 참판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번 축전에서 보통강구역종합식당은 단체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으며 이 식당에서 내놓은 막걸리와 된장국수집, 닭고기강국수, 약산적에는 금메달이, 그밖의 많은 로리들에는 은메달과 동메달이 수여되었다.

우리와 만난 지체인 한계봉동무와 김행욱, 변홍심, 리성욱, 김경숙동무들을 비롯한 종합식당의 일꾼들과 로리사, 접대원들은 축전에서 받은 그 메달들을 자랑과 금지에 넘쳐 보아주면서 앞으로도 민족음식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결심을 터놓았다.

한계봉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은정을 떠나 어찌 오늘날의 이성과를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에서 저희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겨주시고 인민의 봉사자 된 영예를 꽃피워주시는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는 것입니다.》

본사기자 윤 지 혜

웃음속의 비긴 락관

천태군 금성리 28, 29, 30인민반이 산기슭에 처마를 잇고 오솔이 들어앉은 쇠골 마을에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마을에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가을날에 녀성들이 모여 민족성이 한껏 넘쳐나는 다례로 온 유취오락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마음껏 터치는 방탄의 웃음소리이다.

그날과 시련을 혁명적락관주의로 이겨내며 맡겨진 혁명적소를 굳건히 지키고 가정생활을 억척스럽게 꾸려온 우리 녀성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그들의 락관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흥겨워지고 힘이 생긴다.

마을의 세인민반의 가정주부들은 이런 때이면 자기들의 특기를 남김없이 보여준다.

비긴 락관

독장, 독무도 좋지만 북창안에 맞춰 인민반별로 진행되는 중창과 민족로리경연, 율놀이 등은 매년 승벽심을 돋우어 더욱 불탄다.

인민반장들인 차영애, 권금순, 장선녀동무들은 이러한 문화정서생활을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게 하려는 열의에 넘쳐 목격지향성으로 진행되고있다.

누구나 여기에 참가하여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나면 더욱 젊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한다.

북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 그칠새없는 마을의 풍만한 정서생활의 흐름속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강성대국수리에 대한 락관이 더욱 깊이 뿌리내린다.

로봉룡선원 김 문 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본사기자 장 청 일 역음

새로 나온 기록영화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연 150일전투, 100일전투》

조선기록촬영화영소에서는 최근 기록영화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연 150일전투, 100일전투》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는 150일전투, 100일전투를 몸소 맡기하시고 전투에서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보

여주는 역사적자료들을 편집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와 또 한차례의 핵시험의 성공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만 단기를 마련해 주시고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로 들끓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저적도강행군으로 불변불후의 애국헌신의

장점을 이어가신 자료들을 영화는 수록하고있다.

영화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우리 식의 주체적생산체제를 완성한 성공의 강철전사들, CNC화를 실현한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 그리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 용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생업소로

조선혁명박물관과 웰남 호지명 박물관사이의 친선관계 설정 및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조선혁명박물관과 웰남 호지명 박물관사이의 친선관계 설정 및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12일 호지명박물관에서 조인되었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웰남 호지명 박물관을 방문한 조선혁명박물관 대표단 성원들, 웰남사회주의

외부성대표단 도착

공화국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상대측에서 웰남 문화, 체육 및 관광성 부상을 비롯한 관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대표단 단장과 호지명박물관장이 합의서에 수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시 (특별시)와 몽골 도로, 운수, 건설 및 도시경영성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발전에 관한 량해문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시 (특별시)와 몽골 도로, 운수, 건설 및 도시경영성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발전에 관한 량해문이 21일 라선에서 조인되었다.

조선시에는 우리측에서 김수열 라선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

재중조선인예술탄이 떠나갔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예술탄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팔레스티나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만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2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용진교수장, 김병발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준 의무성 부상, 문체철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그는 강 팔레스티나국가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만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치의 탄생 98돐

을 기념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7돐을 경축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아흐르 아라파트대통령각하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하신 친선잔치는 마흐무드 아바스각하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강화발전되고있다.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민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친선적인 조선인민과 함께 있으며 조선의 모든 발기들을 지지하고있다고 말하

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난관을 극복하고 진보와 번영, 찬란한 미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것을 바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의 벗들이 우리 인민과 함께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팔레스티나지도부와 인민의 다함없는 호모심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치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우리

진정을 바쳐

을 맞고보내는 바쁜 속에서 도 축산기지를 꾸리고 많은 집집을 길러 해마다 인민군병사들에게 보내주고있다.

특히 견견과 닭을 증식을 맞으며 가정에서 기른 토끼로 영양식품을 만들어 초소원들을 영예군인의 결혼상을 친부모, 친형제 친정조부모 성의껏 차려주고 텔레비전수상기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었을뿐 아니라 명절과 기념일마다 영예

군인가정을 찾았을것을 정상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한 마음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은 오늘도 많은 임무수행에서 협신을 일으키는것과 함께 인민군대원호사업에 계속 힘을 쏟으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의 길,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이어져오는 인류의 강렬한 염원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세계비핵화의 일환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난 몇해동안 진행되어왔으나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당사자들사이의 불신이 뿌리깊은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이 불충분한 목적으로 문제

의 본질을 심히 외곡하고있는데 있다.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현방도를 솔게 찾자면 애초에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부터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세계 최대의 핵피해국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 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위협이다.

우리 민족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격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조선전쟁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참모부에 《중국어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 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 해 12월 미국공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폭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폭언하였다.

미국의 원자탄공격으로 하여 전쟁 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이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이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보냈다. 이렇게 되어 생겨난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오늘날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살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다. 1950년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어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 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되었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데

2.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세간계를 거처며 경주되어왔다.

첫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대장설의 방법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비핵화대장설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던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어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000여기를 넘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제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았다. 1969년 《포커스 메리너》 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 이후 《프리미볼트》, 《팀 스피리트》, 《연합전시연습》, 《키 리콜브》, 《독수리》와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장장 40여년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어왔다.

이처럼 전후에 태어난 세대들도 남조선에 실전배비된 미국핵무기의 파괴로 인하여 핵화양태를 맞으며 자라났듯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핵현실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세간계를 거처며 경주되어왔다.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협을 가시하기 위한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1986년 6월 23일에는 정 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명도, 명공, 명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중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가중시켜왔다.

둘째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배합하였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이 미국과 이전 소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다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 핵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호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형성에 따르 는 기존의 비정기사찰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간의 불순소력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행위》를 조작해왔다. 이러한 강제사찰의 강도적본질은 그후 이라크사태에서 적라라 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나중에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

보》가 허위남조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 후였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결국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 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포하고 기탁국들에 통지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회담에 응해나오는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임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턴행정부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부수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해버렸다. 이어 부수행정부는 2002년 1월 30일 《년두교서》에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한 나라를 이 정도로 적대시한다는것은 곧 이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핵위협을 의미한다. 특히 그해 3월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확화의 위협

에 처하게 되었다.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것이 명백해졌다.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었다.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뿐이었다.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자로 떠밀고있었던것이다.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불변하다. 2005년 6차회담에서 채택 발표된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있다. 아직도 조선반도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

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 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핵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 나온 플루토늄을 전부 무기화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꼭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약국으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었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말모리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대사에서 핵위협해제노력이다.

우리는 필요만큼 핵무기를 생산할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포획성산하지 않을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차 회담이 제기된 말은 판개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우리는 필요만큼 핵무기를 생산할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포획성산하지 않을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차 회담이 제기된 말은 판개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주체99(2010)년 4월 21일 평 양

단편 <정치검찰>의 개요망신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반대파인들을 물어메치기 위해 정선일이 해마다 검찰이 개요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얼마전 검찰대원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진 《정권》의 주요인물인 한명숙의 《부정부패혐의를 포착》하고 이것이야말로 다 먹이놓은 떡이라고 장담하여 그를 기소하였는데 재판에서 뜻밖에도 《근거부족》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얼려진데 의하면 어느 한 기업체사장이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고 토론했지만 돈을 어떻게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몇번이나 뒤집었다. 또 한명숙이 한명숙이 돈을 받았는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엉터리증언인것이다. 검찰이 정확한 근거도 없는 혐의내용을 가지고 강박을 부렸으니 그런 무리한 놀음이 통할수 있겠는가.

남조선각계는 이 일을 놓고 검찰이 법과 정의대신 당국의 정치적주문을 따르기에 급급하

남조선대학생들 민주화를 위한 투쟁 전개

남조선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4.19인민봉기 50주년을 즈음하여 18일 서울에서 민주화실현을 위한 대행진을 전개하였다.

참가자들은 4.19봉기가 남조선에서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사적계기로 된다고 피력하였다.

현 당국이 언론,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국민을 무참히 짓누르며 력사의 흐름을 되돌리려고 발악하고있다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남조선에서 《CBS》방송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강화군의 한 소목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이 목장에서 기르

반통일매국세력을 단호히 심판하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6.15자주통일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

담화는 남조선집권세력이 오는 6월초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어떻게 하나 제정권의 지반을 다지기 위해 갖은 모략책동을 애쓰고 있다며 남조선인민들은 대대적으로 단결하여 남조선 집권세력을 단호히 심판하자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이러한 반역무리가 《정권》의 지위에 계속 앉아있었다면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이 더욱 억압되었을것이라고 우리 민족이 핵확화를 일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계급의 총대들 뒤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급요양에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요사업에 착취제도를 끌고다니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 다.》

말마침 천재군 공성세를 찾았으니 우리는 한로인인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중학생들 업생들에게 들려주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게 되겠다.

알고보니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었다.

《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의 몸으로 왜 총을 잡고 전쟁에 나섰는사.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멘 로인은 해방전쟁을 떠돌던 시절에 그는 나라를 잃었던 수난의 그 세월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를 잃었다. 그를 낳는 날까지 피박일이 내려져있는 발에서 일한 어머니가 해산후 산후탈로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버지의 손에서 동남쪽으로 겨우 살아난 그는 7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그는 《칠월》이라고 불리었으며 어릴적부터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은 한해동안 탐종려 농사지어 거둔 열매 안되는 날안마져 지주들에게 모조리 빼앗겨서 그해 겨울날이었다. 그는 지주집가에서 종일 비껴다

계급의 총대들 뒤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급요양에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요사업에 착취제도를 끌고다니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 다.》

말마침 천재군 공성세를 찾았으니 우리는 한로인인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중학생들 업생들에게 들려주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게 되겠다.

알고보니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었다.

《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의 몸으로 왜 총을 잡고 전쟁에 나섰는사.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멘 로인은 해방전쟁을 떠돌던 시절에 그는 나라를 잃었던 수난의 그 세월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를 잃었다. 그를 낳는 날까지 피박일이 내려져있는 발에서 일한 어머니가 해산후 산후탈로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버지의 손에서 동남쪽으로 겨우 살아난 그는 7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그는 《칠월》이라고 불리었으며 어릴적부터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은 한해동안 탐종려 농사지어 거둔 열매 안되는 날안마져 지주들에게 모조리 빼앗겨서 그해 겨울날이었다. 그는 지주집가에서 종일 비껴다

계급의 총대들 뒤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급요양에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요사업에 착취제도를 끌고다니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 다.》

말마침 천재군 공성세를 찾았으니 우리는 한로인인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중학생들 업생들에게 들려주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게 되겠다.

알고보니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었다.

《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의 몸으로 왜 총을 잡고 전쟁에 나섰는사.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멘 로인은 해방전쟁을 떠돌던 시절에 그는 나라를 잃었던 수난의 그 세월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를 잃었다. 그를 낳는 날까지 피박일이 내려져있는 발에서 일한 어머니가 해산후 산후탈로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버지의 손에서 동남쪽으로 겨우 살아난 그는 7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그는 《칠월》이라고 불리었으며 어릴적부터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은 한해동안 탐종려 농사지어 거둔 열매 안되는 날안마져 지주들에게 모조리 빼앗겨서 그해 겨울날이었다. 그는 지주집가에서 종일 비껴다

계급의 총대들 뒤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급요양에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요사업에 착취제도를 끌고다니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 다.》

말마침 천재군 공성세를 찾았으니 우리는 한로인인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중학생들 업생들에게 들려주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게 되겠다.

알고보니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원수들과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었다.

《내가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의 몸으로 왜 총을 잡고 전쟁에 나섰는사.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멘 로인은 해방전쟁을 떠돌던 시절에 그는 나라를 잃었던 수난의 그 세월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를 잃었다. 그를 낳는 날까지 피박일이 내려져있는 발에서 일한 어머니가 해산후 산후탈로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버지의 손에서 동남쪽으로 겨우 살아난 그는 7월에 태어났다고 하여 그는 《칠월》이라고 불리었으며 어릴적부터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

은 한해동안 탐종려 농사지어 거둔 열매 안되는 날안마져 지주들에게 모조리 빼앗겨서 그해 겨울날이었다. 그는 지주집가에서 종일 비껴다

두 제도에 비긴 판이한 운명

미명을 위해 자신을 목숨까지 바쳐 주복노동무를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강제집중공장 지배인 강성화 동무를 비롯한 공작들의 역시 학원을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온 새 세대들을 육성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어 어엿한 로력혁신자들로 키워냈을뿐 아니라 은 공장이 펼쳐나갈 때 이 개성을 이룰 때 필요한 오파 메장관, 살림도구까지 미리 다 장만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이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요구대로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에서만 꽃피어나 수 있는 비공이다.

어찌 이들만이야. 이 땅의 어디서나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들을 만날수 있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

두 제도에 비긴 판이한 운명

미명을 위해 자신을 목숨까지 바쳐 주복노동무를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강제집중공장 지배인 강성화 동무를 비롯한 공작들의 역시 학원을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온 새 세대들을 육성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어 어엿한 로력혁신자들로 키워냈을뿐 아니라 은 공장이 펼쳐나갈 때 이 개성을 이룰 때 필요한 오파 메장관, 살림도구까지 미리 다 장만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이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요구대로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에서만 꽃피어나 수 있는 비공이다.

어찌 이들만이야. 이 땅의 어디서나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들을 만날수 있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

두 제도에 비긴 판이한 운명

미명을 위해 자신을 목숨까지 바쳐 주복노동무를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강제집중공장 지배인 강성화 동무를 비롯한 공작들의 역시 학원을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온 새 세대들을 육성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어 어엿한 로력혁신자들로 키워냈을뿐 아니라 은 공장이 펼쳐나갈 때 이 개성을 이룰 때 필요한 오파 메장관, 살림도구까지 미리 다 장만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이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요구대로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에서만 꽃피어나 수 있는 비공이다.

어찌 이들만이야. 이 땅의 어디서나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들을 만날수 있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

두 제도에 비긴 판이한 운명

미명을 위해 자신을 목숨까지 바쳐 주복노동무를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강제집중공장 지배인 강성화 동무를 비롯한 공작들의 역시 학원을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온 새 세대들을 육성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어 어엿한 로력혁신자들로 키워냈을뿐 아니라 은 공장이 펼쳐나갈 때 이 개성을 이룰 때 필요한 오파 메장관, 살림도구까지 미리 다 장만해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이것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의 요구대로 서로 돕고 이르는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에서만 꽃피어나 수 있는 비공이다.

어찌 이들만이야. 이 땅의 어디서나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들을 만날수 있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

자본주의가 낳은 《문명》

우리 나라에서는 《문명》이란 말이 이미 해방직후에 사라져버렸고 누구나 한 톨푼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약 7억 76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문명국》으로 더 가까이 접

자본주의가 낳은 《문명》

우리 나라에서는 《문명》이란 말이 이미 해방직후에 사라져버렸고 누구나 한 톨푼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약 7억 76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문명국》으로 더 가까이 접

자본주의가 낳은 《문명》

우리 나라에서는 《문명》이란 말이 이미 해방직후에 사라져버렸고 누구나 한 톨푼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약 7억 76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문명국》으로 더 가까이 접

자본주의가 낳은 《문명》

우리 나라에서는 《문명》이란 말이 이미 해방직후에 사라져버렸고 누구나 한 톨푼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약 7억 76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문명국》으로 더 가까이 접

자본주의가 낳은 《문명》

우리 나라에서는 《문명》이란 말이 이미 해방직후에 사라져버렸고 누구나 한 톨푼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약 7억 76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문명국》으로 더 가까이 접

자본주의가 낳은 《문명》

우리 나라에서는 《문명》이란 말이 이미 해방직후에 사라져버렸고 누구나 한 톨푼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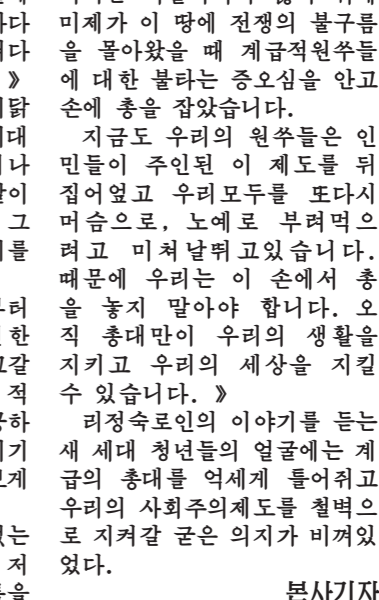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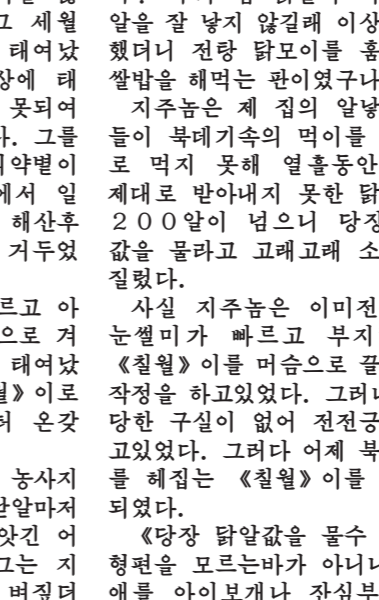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약 7억 76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문명국》으로 더 가까이 접

자본주의가 낳은 《문명》

우리 나라에서는 《문명》이란 말이 이미 해방직후에 사라져버렸고 누구나 한 톨푼들이지 않고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싶어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있으며 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문맹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약 7억 7600만명에 달하는데 특히 아프리카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발전되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나라들이 《문명국》으로 더 가까이 접



겸허하고 인자한 인민적 수령의 빛나는 귀감

오늘 세계 수많은 진보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뜨겁게 회고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만민의 순결한 마음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된 태양절기념 집회, 강연회, 영화감상회, 로작발표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다.

인류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회색의 위인으로서 세계 인민들은 오늘도 그토록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워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위대한 사상가로서, 뛰어난 정치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기 전에 고결한 인간이시었다. 직업의 귀천과 인종, 사상과 신앙의 차이 등을 초월하여 각계각층 사람들을 뜨겁게 대접하신 인간적인 인간, 만나시던 그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다정다감한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가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세계의 한나라는 정치가들, 각계각층의 인사의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간미를 팔려 《주석동지》, 《주석각하》만 공식적인 부름이 아니라 《형님》, 《오빠》, 《아버님》, 《할아버님》 등으로 스스럼없이 수령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고는 왜 그토록 감복하고 매혹되었는가.

이에 대하여 한두마디의 말로는 다 이야기할수 없다.

우리 수령님은 틀을 차리고 격식을 갖추는 것을 경멸하는분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세상사람들이 굳어졌던 마음을 풀고 수령님

을 친근하게 대한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주제 81 (1992)년 4월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사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인민위원회는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무관심한 정을 느꼈음이 받아들여져 기자단을 접견해주시고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주시었다.

그때 기자단 단장이 위대한 수령님께 이렇게 말씀하였다.

《주석각하께서 즐기시는 취미가 무엇이고 어떤 오락과 체육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국가수반이나 이름난 정치가들의 개별취미에 대하여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돌리는것은 서방기자들만의 공통된 심리이다. 기자단 단장이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특출한 취미를 지니고계시는지 몹시 알고싶어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그의 허물없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주시었다.

《나에게는 뽕농고 말할만한 특별한 취미나 오락은 따로 없습니디. 책보기를 좋아하고 인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나의 취미라고 말할수 있습니디.》

기자단원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크게 감동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겸허한 그 말씀에서 그들은 서방세계에서 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위인의

참모습을 보았던것이다.

기자단 단장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였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수반들과 제노라 하는 정객들로부터 사냥이나 낚시질, 수영이나 유혹이 자기의 취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지만 책임이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을 취미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석각하의 취미는 너무도 소박하고 지어 그것을 취미라고 할수 있었는지 의문스러웠지만 담겨진 뜻은 우주의와 같습니디. 참으로 주석각하의 취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명실공히 세계적취미의 취미입니다.》

책임가와 함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지내는것을 제일로 여기신 우리 수령님!

미국 《워싱턴 타임스》가사단 단장이 한복한바와 같이 우리 수령님의 취미는 소박한것 같으면서도 웅장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있는 비범하고 위대한 취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력적인 대의활동의 마지막시기인 주제 83 (1994)년 4월 미국 CNN TV 방송회사 기자단이 수령님의 취미

를 무엇인가고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책임가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는것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책이 많았는 스승이러면 나의 가장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은 인민이라고, 인민들속에 있는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이고 문학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

우고있다고 하신 그 말씀, 여기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취미의 인민성, 혁명성이 함축되어있는것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취미가 미국의 신문, 방송을 통하여 전세계에 알려졌을 때 세상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에 사로잡혔으며 우리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크게 감복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평범한 취미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인민중시사상》, 《백전백승의 비결을 밝힌 주석의 인민관》...

인민을 가장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으로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에게서 겸허한 품도를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사일정에 따라 그 나라 지방에 오래전에 세워진 종교의사를 지내는 한 건물을 참관하게 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그 건물이름이 우리 나라에 있는 옛날의 종교건물과 같은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시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고 그 나라 종교인에게 물으시었다.

그의 설명을 다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 한가지 또 배웠다고 하시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종교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세계적인으로 높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주석님께서 세월의 이기에 묻혀 이제는 그 존재마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보잘것 없는 이 건물에서도 배울것이 있는가고 말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사람은 어딜 가나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늙어죽을 때까지 배우라는 말도 생겨났것이라고 뜻깊

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자 종교인은 한없이 경이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숭엄하게 우러르며 이렇게 말씀

을했다고 한다.

《과시 주석님은 하늘이 낸 대성인이십니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이 곧 우리 수령님의 좌우명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이든, 외국인이든 국가수반으로서의 직분이나 위엄으로써가 아니라 소탈한 품성 그대로 대해주시었다.

바로 여기에 그 어느 위인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적품모가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더듬어 보면 그이께서 인연을 맺으셨거나 사귀신 외국인 권유들과 맞들, 정치가들과 인사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렇기때문에 중국의 장을 화평사와 같이 우리 수령님의 주변안정과 안락을 위하여 뜻깊은 정

충과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혁명동지들도 있다.

향일의 준엄한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장화들의 최후에 대한 비보에 접하였을 때 자신의 가슴속에서 추도가의 구슬픈 선율이 몇백번이나 울려퍼졌다고 하신

종교인은 수십년째 이른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수 있는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

쉽게 대답하기 힘든 물음이다. 어느 정치가나 사상가도, 인간학의 대가도 그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이 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실수 있었다. 그것도 순수 리론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실천적 모범으로 온 세계에 보여주셨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펼쳐진 감동적인 사실이였다.

주제 76 (1987)년 4월 13일 우리 나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관람객을 보시기 위하여 극장의 관람석을 향해 걸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애원한 소녀를 볼에 안아 높이 추켜올리시는것이였다. 혈연적관계를 부여하는것

실은 놀라운 광경이였다.

그 소녀가 바로 장화회사의 증손녀 5살 난 장명명이었다.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그 태양의 빛발아래서 곱게 피어나는 한복이 꽃망울과도 같은 장명명

이상의 판례!

이것은 산 사람과 생을 마친 사람과의 우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세계와 역사앞에 생동한 현실로 보여준 빛나는 화폭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장명명을 품에 꼭 안으시자 그 소녀에는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수령님의 볼에 자기의 볼을 비비면서 함께 웃는것이였다. 감동으로

린 박수갈채가 만장이 떠나갈듯만 채워져 터져올랐다. 관람객연에 참가하기 위하여 봉화예술극장에 왔던 각국 예술단원들이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이 감동적인이며 역사적인 순간을 눈에 익히게 계속될수 있는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 보충하는 력사의 증언자들로 되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맹맹아, 내가 너의 큰 증조할아버지이다, 이렇게 너를 안고보니 너의 증조할아버지 생각이 목이 메이는구

나, 증조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하시는분이였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았다

고 회고록에 쓰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빛나는 세상을 떠난 장화회와 이

어 그의 아들과 떠난 장화회와 장금복, 손자인 장기와 증손녀인 장명명의 대에까지 즐기치게 되였다. 한 나라 국가수반으로서 하실일이 그토록 많은 속에서도 언제나 중국

의 귀중한 혁명전우 장화회를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자신의 몸가짜이 불러주시고

그러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것이였다.

우리 수령님께 매혹되어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인생을 바쳤거나

바쳐가고있는 외국인들은 많다. 캄보디아의 노르문 시하누크대왕과 같은 정치활동가들도 있고 전 라틴아메리카자민권

사기장 해로 카르네로 체가, 이탈리아의 장카를로 알리아리

와 같은 사회계, 언론계 등 인사들도 있으며 군사들도 있다. 한때 반공화국정책과

실현의 앞장서 있던 적대국의 정치가들중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메히꼬단체들 태양절기념 불레쥘 발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꼬단체들이 불레쥘들을 발행하였다.

메히꼬 김일성주석의영위위원회는 불레쥘 제 38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새기고 《태양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불레쥘은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어 오로지 숭고한 인민정치를 펼치시고 한없이 고결한 품모로 만사람을 매혹하시는데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는 불레쥘 제 54호에 김수산기념공전 진행사건을 싣고 《자주와 김일성주석》이라는 표제 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불레쥘은 《자주의 가치를 높이 드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제히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데 대해 전하면서 이때부터 조선혁명론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밝힌 자주의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불레쥘은 《조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진보적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주독립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으셨으며 우리 나라에 진정한 인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불레쥘은 《자주민주주의의 영웅사주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50년 6월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인민은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느냐, 아니면 자주국주의의 존엄을 지키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자주전투를 위한 영웅투쟁으로 불려일으키셨다. 그이께서는 폭탄과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무려 5만 1200여리의 길을 걸으시어 전선과 후방의 1056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초당적 인민적 투쟁을 주도하시어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 이끄시었다.

미국은 수많은 병력과 1만 2200여대의 비행기를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체들을 잃고 저들의 패전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최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며 미국을 타도한것이다.

불레쥘은 《반식같은 자립경제의 구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초기부터 자립적인경제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해왔다.

조선의 자립적인경제는 오늘날 인공지구위성을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단전에 속출하는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한평생 고수해오신 자주의 기치는 오늘 불레쥘의 강구으로 위용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고 불레쥘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의 비난을 배격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가 8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무역강화조치에 대해 이러쿵저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

레바논의 무 및 이민상 알리 사미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아랍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개발을 찬성

서방의 그릇된 정책을 단죄

이란의무장 마누체호르 머라키가 최근 대한성공당의 상부석상에서 서방의 그릇된 정책을 단죄하였다.

서방이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문제시하면서 경제봉쇄에 점묘하게 매달리고있는 한편 다른 나라들이 이란을

죽어나는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 15일 북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4명의 나토군 작전에 의해 계속 죽어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란의 케르만주에 큰 규모의 구단광공장이 건설되어 조

업하였다.

3월 이 나라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참가밑에 공중조업이 진행되었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이 공장의 연간생산능력은 500만 t에 달한다 한다.

원유생산목표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 까지 하루 원유생산량을 100만bbl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해 따라 새로운 유전들을 적극 개발하게 된다.

지난해 나라에서는 하루평균 94만 4000bbl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한다.

수출성교

가나에서 올해 1.4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 증가되었다.

특히 코코아와 금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한다.

16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이로써 목화밭에 물을 넉히 보충하여 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었다.

크란자-술주는 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목화생산 기지이라고 한다.

칠레해부곡노력

칠레대통령 세바스티안 베베라 에체우에가 16일 지친해부곡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보건시설들과 하부구조물들 부수기 위한 공사들이 진행되게 된다.

정부에서 여기에 많은 자금을 들리게 된다 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수리아에서 독립절 기념

수리아에서 17일 독립 64년을 기념하였다.

이날 알레포시에서 수천명의 각계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 연설한 이람사회부총장 지역부비서는 이라크가 강경한 팔란교회를 되찾지 못

독립절 기념

한다면 나라의 완전한 독립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하면서 수리아는 자기 영토의 그 어떤 부분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나라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기념행사가 있었다 한다.

이스라엘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

팔레스타인민족당국 대변인이 11일 이스라엘당국의 그릇된 조치를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수천명의 팔레스타인민족을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추방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매우

환경오염행위를 반대하여 시위

베루의 남부지역에서 14일 미국회사의 환경오염행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이 지역에서 땀방울을 흘리고있는 미국회사가 물오염방지대책을 제

정하고

무역 16일 유럽동맹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사회의 《악성종양》

결합하면 무기를 휘둘러 살인

을 치고 분풀이를 하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총기류범죄는 미국에서 《악성종양》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개인보호와 안전센터》라는 기구는 미국내의 약 500여개 대학들에 《총기안

사방지》를 두고있다. 《교육》을 주고있다. 《교육》내 용이란 총기안정과 관련한 사

건현장들을 찍은 영상을 보여 주면서 그에 대처할 방법들을 알려주는것이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1000개로 늘어났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이 《교육》방법이 더 큰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교육》과정에 총격장면들을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하면 학생들중 일부는 스테레오영상에 고통을 겪게 되며 학생들이 살인방법을 익히고 본받는다것이다.

미국은 개인의 무기소유가

얼마전 이란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위협행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핵무기를 걸고 이란을 계속 위협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 어떤 책동으로도 이란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고 단명하였다.

그는 이란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림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적들의 위협행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란인민의 단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란대통령은 최근에도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활동과 관련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제재가 자기 나라로 하여금 보다 자급 자족하도록 도와주어 나라를 견고하게 해를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이스라엘을 돌리도록 써먹으려고 하고있다.

이로부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이핵행동을 음모양으로 지원하고있다.

미국의 부주권집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음모하며 그 준비를 은밀히 갖추고있다.

얼마전에도 이스라엘공군은 페르샤만지역에서 이란에 대한 타격행동을 진행하였다.

동부쿠드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알 마나르》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공군의 혼란은 미국의 속임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미국과 일부 서방나라들의 대이란주체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군사적타격을 가하지는것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타격하는데 핵무기까지 사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전략학계문제연구소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이란을 타격할수도 있다고 시사한것은 의미심장하다.

지금 이란은 미국과 일부 서방세력들의 압박속에서도 자기 평화적핵활동의지를 굽히지 않고 견결대응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이스라엘을 돌리도록 써먹으려고 하고있다.

이로부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이핵행동을 음모양으로 지원하고있다.

미국의 부주권집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음모하며 그 준비를 은밀히 갖추고있다.

얼마전에도 이스라엘공군은 페르샤만지역에서 이란에 대한 타격행동을 진행하였다.

동부쿠드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알 마나르》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공군의 혼란은 미국의 속임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미국과 일부 서방나라들의 대이란주체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군사적타격을 가하지는것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타격하는데 핵무기까지 사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전략학계문제연구소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이란을 타격할수도 있다고 시사한것은 의미심장하다.

지금 이란은 미국과 일부 서방세력들의 압박속에서도 자기 평화적핵활동의지를 굽히지 않고 견결대응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이스라엘을 돌리도록 써먹으려고 하고있다.

이로부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이핵행동을 음모양으로 지원하고있다.

미국의 부주권집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음모하며 그 준비를 은밀히 갖추고있다.

얼마전에도 이스라엘공군은 페르샤만지역에서 이란에 대한 타격행동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이스라엘을 돌리도록 써먹으려고 하고있다.

이로부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이핵행동을 음모양으로 지원하고있다.

미국의 부주권집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음모하며 그 준비를 은밀히 갖추고있다.

얼마전에도 이스라엘공군은 페르샤만지역에서 이란에 대한 타격행동을 진행하였다.

동부쿠드스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알 마나르》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공군의 혼란은 미국의 속임수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미국과 일부 서방나라들의 대이란주체제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군사적타격을 가하지는것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타격하는데 핵무기까지 사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전략학계문제연구소가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이란을 타격할수도 있다고 시사한것은 의미심장하다.

지금 이란은 미국과 일부 서방세력들의 압박속에서도 자기 평화적핵활동의지를 굽히지 않고 견결대응해나가고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이스라엘을 돌리도록 써먹으려고 하고있다.

이로부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반이핵행동을